

아프리카諸國의 經濟開發戰略의 특징과 진행 과정

表 鶴 吉*

<차례>	
I. 序	가. 아프리카 經濟의 諸類型
II. 開發의 歷史的 背景	나. 經濟開發計劃의 類型과 成果
가. 二次大戰以前의 殖民地 開發政策	다. 經濟開發計劃의 目標와 方法 라. 開發資金의 調達과 外債問題
나. 二次大戰以後의 아프리 카 經濟概況	IV. 問題點과 展望 가. 計劃推進上의 問題點 나. 아프리카 經濟의 開發展望
III. 經濟開發計劃의 概要	

I. 序

近代國家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經濟發展을 至上目標로 삼아왔고 많은 나라들이 經濟開發計劃을 통해 이를 達成하려고 노력해 왔다. 아프리카 新生國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歷史的 從屬關係와 貧困의 惡循環에서 벗어나기 위해 多角的인 開發計劃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Take-off”的 단계에 조차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발표된 世界銀行의 報告書(World Bank, 1983)에 의하면 最低所得國그룹(1인당 GNP 410달러 미만) 34개국 중 21개국, 그리고 中下所得國그룹(1인당 GNP 410~1,700달러) 39개국 중 15개국이 아프리카國家로 나타나고 있다. 最低所得國그룹에 속한 21개국의 1인당 평균 GNP(1981)는 254 달러로 그룹 평균치인 270달러에 미달하고 있으며 中下所得國그룹에 속한 15 개국 역시 1인당 평균 GNP(1981)가 794달러로 동그룹 평균치인 1,500달러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알제리(2,140달러)와 南阿共和國(2,770달러)만이 中上所得國그룹(1인당 GNP 1,700~6,000달러)에 속하고 있으므로 블랙 아

* 서울대 사회대 무역학과 조교수

프리카諸國은 世界經濟의 陰地라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諸國은 낮은 所得 이외에도 낮은 경제성장을 경험해 왔다. 1970 ~81년의 기간동안 年平均 GDP 成長率을 보면 앞서 언급한 38개 아프리카 國家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3개국, 0~2%의 경우가 8개국, 2~4%의 경우가 9개국, 4~6%의 경우가 9개국, 6%를 넘는 나라가 6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추세는 같은 기간 동안의 低所得國 全體의 平均成長率 4.5%, 中下所得國 全體의 平均成長率 5.6%, 그리고 中上所得國 全體의 平均成長率 5.6%에 비하면 상당히 뒤지는 수준이다(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1984:18). 또한 1960~81년의 기간 중 1인당 GNP성장을 보면 低所得國 21個國의 평균성장을 0.48%에 지나지 않았으며 中下所得國 15個國이 2.4%, 中上所得國이 2.7%의 평균성장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특히 南阿共和國과 북아프리카(이집트, 리비아, 튜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를 제외한 사하라以南(South of the Sahara)의 소위 블랙 아프리카(Black Africa) 국가들에만 국한하면 경제성장은 더욱 미미한 실정이다.

第二次 世界大戰 以後 아프리카의 新生獨立國들이 기대했던 획기적인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점에서 그들에게는 지난 30年間이 실망과 환멸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많은 國際 機構나 아프리카국가들 자신의 기대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데 있었으며 西歐的인 經濟開發이 적용될 수 없었던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들이 看過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諸國은 흔히 속죄양이 되어온 식민지주의의 遺產 이외에도 國家보다는 部族意識下의 傳統社會가 갖는 因習, 市場經濟의 未發達, 높은 文盲率과 風土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西歐式 產業發展을 기대하는 것이 幻想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프리카에서 資本主義(capitalism)는 곧 植民主義(colonialism)의 同義語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60년대에 아프리카대륙을 풍미한 아프리카化 政策(Africanization policy)은 많은 國家들이 脱植民經濟를 구실로 社會主義的 計劃經濟에로의 轉換을 모색하였으나 그 결과前述한 대로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가 사실상 停滯狀態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逆說的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프리카經濟가 갖고 있는 最大的 潛在力은 바로 이와 같은 低開發의 狀態 그 自體라고 말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面積이 3,033萬km²로

서 전세계 면적의 22.6%에 달하나 人口는 4억 8,400만명(1981년)으로 전세계 인구의 10.7%에 불과하다. 天然資源은 地域的으로 偏重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무진장으로 보존되어 있는 鎳物資源과 水資源, 그리고 거대한 農林資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開發의 潛在力은 資源不足·人口過密에 허덕이는 아시아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애쉬턴(Ashton, 1948)이 지적한 것처럼 產業革命은 年代記의 期間이 아니라 한 사회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일종의 社會運動(social movement)이기 때문에 아프리카諸國의 社會文化的 要因들이 본격적으로 產業化에 點火될 수 있는 時點까지는 상당한 開發努力의 試行錯誤過程을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未知의 大陸(the Unknown Continent) 또는 暗黑의 大陸(the Dark Continent)으로 불리워 온 아프리카大陸도 결국은 본격적인 開發의 路程을 밟을 것이다. 1977~82년 중 블랙 아프리카의 輸出은 年平均 6.5%씩 증가하여 開途國 全體(-9.5%)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輸入은 年平均 10.6%씩 증가하여 開途國 全體(13.0%)보다 오히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도 一次產品이 輸出品의 主宗을 이루고 있으나 이와 같은 輸出入伸張率은 결국 아프리카의 開放化가 促進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開放化가 아직도 경제활동이 생계유지에 국한되고 있는 自給自足部門(subsistence sector)에 어떻게擴散될 것인가가 開發의 主要課題로 남게 된다. 또하나 肯定的인 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지난 30년간 政治的 無秩序를 경험한 아프리카諸國 간에 政治安定이 經濟發展에 先決課題이며 이데올로기(ideology)나 도그마(dogma)가 정치적 선전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經濟的 果實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自覺의 共感帶가 形成되고 있다는 점이다.⁽¹⁾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지난 20년동안 진행된 아시아 각국에서의 經濟開發이 今世期末이나 21세기 초에는 아프리카大陸에서 되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다.

日本은 이미 이러한 可能性에 착안하여 상당한 규모의 直接投資와 對아프리카 貿易 및 借款供與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日本의 總輸出入 中 對아프리카 輸出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도 현재 각각 4.2%, 2.8%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1983년 현재 對아프리카輸出入 比重 3.1% 및 2.4%

(1) 이러한 自覺에 입각하여 설립된 地域協力機構로는 1975년에 西아프리카 16개국에 의해 설립된 ECOWAS (CEDEAO)를 들 수 있다.

보다 높은 것이다. 日本의 直接投資 역시 1981년 현재 2,018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資本協力額도 총 5,285백만 달러(정부 베이스: 무상—482백만 달러, 유상—2,083백만 달러; 민간 베이스: 1,623백만 달러; 연불수출: 97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日本의 아프리카開發基金(African Development Fund: AFDF)에 대한 出資額은 1981년 말 현재 190백만 달러로 23個 出資國中 1位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開發銀行(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에도 262백만 달러를 出資함으로써 美國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1984).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도 對아프리카 進出을 長期的인 眼目에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日本과 같은 大規模의 直接投資나 經濟協力を 실현시킬 수는 없고 따라서 資本進出이 없는 상태에서의 貿易規模 역시 制約을 받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바터交易의 擴大, 小規模의 플랜트輸出 및 資源開發에의 共同參與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는 우리 나라의 向後 對아프리카進出을 염두에 두고 아프리카諸國의 經濟開發現況을 概觀함으로써 開發展望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다만 主要國의 現行開發計劃을概觀하기 전에 아프리카諸國의 開發計劃이 갖고 있는 歷史的 背景을 살펴 보고 지난 20년간의 成果를 살펴 보도록 한다.

II. 開發의 歷史的 背景

가. 二次大戰 以前의 植民地 開發政策⁽²⁾

北아프리카는 古代부터 유럽 및 中東과 經濟關係를 유지하였으나 그 나머지 지역은 古代로부터 孤立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사하라 以南의 지역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 첫째는 西部수단과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사하라 횡단교역이고, 둘째는 西아프리카 海岸地域에 집중되어 있는 유럽의 交易基地(trading posts)들이며, 셋째는 아프리카大陸의 東岸에 위치한 아랍정착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南端에 위치한 유럽인들의 정착지를 들 수 있다. 1869년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南아프리카 지역도 餘他地域과 마찬가지로 孤立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交易地域들로부터 內陸으로 고작 150마일 정도가 교역영향

(2) Berg (1972) 참조.

권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西아프리카가 貨幣經濟와의 접촉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된다. 1860년대까지 세네갈로부터 땅콩이, 가나와 나이제리아로 부터는 고무와 生木 등이 수출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프리카의 對外交易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1880년대까지 아프리카는 自給自足生產體制 즉 市場에 판매하기 위한 것보다는 自家消費를 목적으로 하는 前近代的 經濟體制가支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거의 3세기에 걸친 유럽의 對아프리카 접촉은 노예去來 위주로 형성되었고 一部 海岸地域에 국한되었으며 아프리카에 근본적인 變化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다.

아프리카 經濟가 貨幣經濟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다. 1900년부터 1930년까지 아프리카 경제는 상당한 成長을 이룩하였으며 비록 제 1차 세계대전과 大恐慌으로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1900년 이전의 고립상태와 비교할 때 팔목할 만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기간동안의 여러 나라 統計資料를 구할 수는 없으나, 예컨대 南阿共和國은 1911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4.5%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콩고의 경우는 1920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4%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케냐는 1923~1939년의 기간동안 약 2.7%의 경제성장을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世界의 餘他地域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 1차 世界大戰 前 10년동안의 輸出統計를 보면 輸出伸張이 急速한 速度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佛領 西아프리카와 나이제리아에서 同期間동안 輸出이 倍加되었고 가나, 케냐, 탕가니카 등은 6倍로, 우간다의 경우는 10倍 이상 증가되었다. 1920년대 말 大恐慌 直前까지는 아프리카大陸의 거의 모든 지역의 輸出額이 적어도 2倍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1920年代末 到來한 大恐慌은 아프리카 經濟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수출가격이 急落되었고 그 결과 경제성장도 눈에 띄게 鈍化되었다. 政府支出이나 고용수준이 격감되었고 市場經濟的 發展樣相이 급격히 후퇴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은 大恐慌으로 인한 國內投資需要의 격감으로 시달리게 되자 광대한 植民地國家들에 대한 投資政策을 모색하게 되었다.

英國은 1929년 植民地開發法(the Colonial Development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法에 따르면 植民地에 대한 經濟支援은 “植民地의 農業과 產業을

개발하여 英國과의 交易 내지는 英國의 產業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한 것”임이 明示되어 있다. 同法은 1945년 終戰과 함께 植民地開發福祉法(the Colonial Development and Welfare Act)으로 代替되었는데 이때 航后 10년간 총 1억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資金의 配分을 목적으로 各植民地 政府가 10年計劃을 작성하도록 요청되었다.

프랑스 역시 1934~35년의 帝國經濟會議(the Imperial Economic Conference)를 통하여 150억 프랑 규모의 植民地開發基金(the Colonial Development Fund)을 15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바 있다. 英國의 경우와는 달리 1946~56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個別國家의 開發計劃이 巴黎에서 직접 성안되었다.

이와같이 1930년대 이후 본격화된 英國과 프랑스의 植民地開發計劃의 주된 동기는前述한대로 植民地開發이라는 순수한 意慾보다는 恐慌으로 시달리는 自國產業에게 第二의 投資市場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 나라의 영향권에 있는 아프리카諸國이 아프리카大陸 全體人口와 面積의 2/3를 차지하였으므로 이들 開發計劃은 戰後 아프리카 經濟開發計劃의 결정적인 契機를 제공한 셈이다.

나. 二次大戰 以後의 아프리카 經濟 概況

二次大戰이 끝난 후 1960년까지 아프리카經濟는 1920年代에 경험한 것과 같은 經濟擴張을 경험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1950년대 말에는 1930년대 말의 수준보다 10~15倍 높은 수출규모를 갖게 되었으며 투자액 역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佛領 아프리카의 경우 1947~58년의 기간 동안 投資된 액수가 그 이전 50년간 투자된 액수보다 많을 정도였다. 國別總固定資產增加率을 보면 로데지아의 경우 數年間 40%를 초과하였으며 벨기에領 콩고는 1950년대를 통하여 30%에 달하였고, 15% 미만의 증가율을 가진 나라는 數個國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經濟의 戰後 擴大樣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要因이 작용한 것이다. 첫째, 아프리카諸國이 수출하는 原資材價格과 市場條件이 대체로 良好한 편이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이와 같은 輸出收入의 增大와 新生國으로서의 期待感이 함께 작용하여 外國企業과 國內企業들의 신규투자와 再投資를 促進시키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뉴딜(New Deal) 政策으로 표방되는 戰後植民主義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가령 벨기에領 콩고에는 1950~59년간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고 1947~57년간 佛領 西아프리카에도 프랑스에 의해 제공된 公共投資額이 10억 달러(1956년 가격)에 달하였다. 舊英國殖民地國家들은前述한대로 1946년에 설립된 殖民地開發福祉基金(Colonial Development and Welfare Fund)과 英國政府에 의해 제공된 借款의 惠澤을 받았다.

그러나 1958년을 基點으로 많은 아프리카國家들의 經濟的 擴張은 限界에 부딪치게 되었다. 첫째로, 커피, 코코아 등 主要輸出品의 價格이 急落하기 시작하였고, 둘째로, 政治的 獨立과 脱植民一아프리카化 運動이 시작되면서 國際資本의 流入이 鉛化되고 콩고, 로데지아, 南阿共和國 等地에서는 資本逃避現象까지 招來되었기 때문이다.

1960~70년의 기간 동안 아프리카諸國의 평균 GDP성장율은 3.3%로 1950~1960년의 평균성장율 4.4%보다 낮았으며 1인당 GNP 평균성장율도 2.2%(1950~1960년)에서 1.0%(1960~1970년)로 下落하였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 大陸을 풍미한 政治的 混亂은 外國投資의 萎縮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既存하던 經濟單位의 축소를 가져왔다. 즉 각국의 政治的 獨立으로 西아프리카聯合, 西아프리카 및 東아프리카貨幣當局에 의한 貨幣同盟 및 共同市場 등 國家經濟보다 더 큰 經濟單位의 機能이 위축되게 되었고 그 결과 안 그래도 狹少하였던 市場은 더욱더 狹少하게 되었다.

1960년에 1인당 GNP가 200달러를 넘어섰던 나라들로는 세네갈, 가나, 가봉, 南로데시아 및 모리셔스 등인데 가봉만이 鑛物資源의 계속적인 개발로 성장이 유지되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政治的 不安定으로 經濟成長의 停滯狀態를 경험하였다. 그 결과, 1960년 이후에 1인당 GDP가 200달러 이상이 된 나라들은 아이보리 코스트, 리베리아, 스와지랜드 및 잠비아 등이며 이들 국가 역시 아이보리 코스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鑛物資源의 개발과 政治가 相對的으로 安定되었던 테 기인하였다.

1970년 이후 10년동안의 經濟成長을 살펴보면 총 38개 아프리카국가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3개국, 0~2%의 경우가 8개국, 2~4%의 경우가 9개국, 4~6%의 경우가 9개국, 6%를 넘는 나라가 6개국으로 나타나고 있어 低所得國 全體의 平均成長率 4.5%나 中下所得國 全體의 平均成長率 5.6%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經濟成長을 기록하고 있다. 아프리카經濟는 1976~81年中에는 연평균 3.8%의 실질 GDP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차

오일 쇼크 이후 세계적인 不況의 영향으로 1982년에는 1.2%, 1983년에는 -0.7%라는 마이너스成長을 기록한 실정이다(IMF, 1983).

유엔에 의해 설정된 第二次 開發 10個年(the United Nations for the Second Development Decade) 동안 즉 1970년대를 통한 아프리카經濟의 개발목표는 6%의 GDP 성장을과 3.5%의 1인당 GDP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前述한대로 아프리카 各國의 政治的 不安定,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 또한 그 餘波로 인한 國際資本의 短期化, 商業借款化 등의 이유로 各國의 開發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의 流入이 達成되지 못했던 것이다.

III. 經濟開發計劃의 概要

가. 아프리카經濟의 諸類型

아프리카諸國은 戰後 經濟開發樣相에 따라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그룹은 當該國經濟가 鎳業이나 유럽식의 農業生產에 基礎를 두고 있는 나라들로 대개가 유럽정착민들이 많이 居住하고 있는 나라들로 北아프리카諸國, 南阿共和國, 로데지아, 케냐, 콩고 및 포르투칼領 植民地들이다. 두번째 그룹은 傳統的 農村經濟로서 輸出可能한 現金作物(cash crops)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 온 나라들로 유럽인들은 대개 商人이나 行政家의 역할만을 맡고 있을 뿐이다. 西아프리카國家의 대부분과 우간다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마지막 세번째 그룹은 기니아, 탕가니카, 리베리아 등과 같이 위와 같은 두가지 類型이 混合되어 共存하는 나라들로 구성된다. 가령, 기네아는 1960년 이후 鎳產物輸出이 활발해졌으나, 自國農民에 의한 커피제배, 유럽정착민에 의한 바나나제배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탕가니카에서는 커피는 自作農民에 의해 제배되지만 로프의 원료로 쓰이는 시잘(sisal) 삼 등은 大農場(plantation)에서 제배되고 있다. 리베리아의 고무제배도 전통적으로는 移住民에 의한 大農場經營에 의해 생산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自國民에 의한 생산이 急增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區分은 다분히 憨意的인 면이 없지 않지만 戰後 아프리카各國의 開發類型을 理解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첫번째 그룹에 속하는 鎳業—移住民農業型 經濟를 가진 나라들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移住民 比率을 갖고 있으며 植民地期間 동안의 資本投資도 대체로 이들 國家에 集中되었다.

프랑켈 教授에 의하면 1880~1936년의 기간 동안 사하라 以南地域에 투자된 外國人投資를 보면 42%가 南阿共和國에, 18%가 로데지아에, 11%가 벨기에領 콩고에, 나머지 4%는 케냐와 우간다에 투자되었다고 한다(Frankel, 1969).

이들 국가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賃金所得者의 比率이 餘他國家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가령 南阿共和國과 南部로데시아의 아프리카住民中 1/4이상이 賃金所得者들이다. 케냐, 北部로데시아 및 콩고의 경우는 약 10%가 賃金所得者들이며 나머지 國家에서는 이 비율이 대체로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鑛業一移住民農業型 國家들은 특히 不平等한 所得分配構造를 갖고 있다. 南阿共和國, 北部로데시아, 케냐 및 콩고 등의 국가에서는 GDP 중 1/3정도만이 아프리카주민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餘他國들의 경우에는 2/3정도의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주민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주민들의 소득에서 賃金所得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들 국가들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南阿共和國, 로데시아 및 콩고에서는 아프리카주민에 귀속되는 소득 중 65~90%가 임금소득이며 주로 농업국가라고 볼 수 있는 케냐에서조차 그 비율은 80%에 달한다고 한다. 餘他國家의 경우는 그 비율이 20~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아프리카經濟의 類型別 區分은 물론 植民主義의 歷史的 產物이며 世界經濟에서 孤立된 결과이다. 아프리카經濟의 開發現況을 이해하고 開發潛在力を 展望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아프리카經濟의 類型別 特性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그룹에 속하는 鑛業一移住民農業型 經濟를 가진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소득성장률과 투자증가율을 실현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보다 밀도 높은 社會間接資本을 갖고 있고 工業化 패턴도 餘他國들보다는 훨씬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의 경제는 對外依存성이 더욱 높고 아프리카주민의 정치참여도가 餘他國 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自營農村型 經濟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人種別所得隔差가 심하지 않고 아프리카주민의 정치참여도 역시 높은 편이다. 이들 나라들은 對外依存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구조가 훨씬 단순하며 아프리카주민에 의해 운영가능한 체계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나 上述한 것과 같은 類型別 異質性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諸國은 많은 共通點을 갖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대체로 農業이나 鎳業 등 一次產業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광대한 自給自足部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近代化된 部門은 非아프리카資本과 技術에 의해支配되고 있으므로 從屬的 色彩가 강하고 그 결과 經濟開發의 程度도 地域別로 國家別로 심한 隔差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諸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人口密度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나. 經濟開發計劃의 類型과 成果

植民地分割이 끝나고 아프리카에 政治的 獨立運動이 왕성하게 대두된 시기까지 아프리카 經濟는 그야말로 “沈默이라는 陰謀의 犠牲物”(the victim of a conspiracy of silence)로 존재해 왔다(Uppal and Salkever, 1972:1). 노예거래와 一部 鎳產物 및 特用作物의 貿易 이외에는 對外接觸이 단절되어온 이 大陸에 經濟開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물론 政治風向의 變化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新生獨立國의 一次的 目標는 民生問題의 解決을 위한 經濟開發에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諸國도 餘他地域의 新生國들과 동일한 開發意慾을 갖기 시작했다.

經濟開發計劃의 背景으로 작용한 보다 직접적인 動因은 既述한 바 있는 英國과 프랑스의 植民地經濟開發計劃이었다. 1930年代에 成案된 兩國의 開發計劃은 大恐慌의 突破口로서 海外投資를 促進시키기 위한 것이 보다直接的인 政策目標였으며 植民經濟의 開發은 어디까지나 副次的인 것이었다. 그 결과 兩大國의 影響圈內에 있는 各國도 開發計劃의 作成이나 實行과정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게 된다. 英國圈 國家들의 開發計劃은 주로 自國 스스로 成案되었으며 開發目標를 設定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였으나 前프랑스식민지들의 開發計劃은 주로 파리에서 직접 成案되었고 훨씬 더 中央集權的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50~60년대 주로 計劃初期의 開發計劃을 主要國別로 要約해 보면 〈표 1〉과 같다. 대체로 프랑스의 영향권내에 있는 국가들은 10개년 내지는 20개년 장기계획 밑에 短期開發計劃이 成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開發計劃國들의 1960~81년간의 1인당 GNP 성장율을 살펴보면 北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低調한 상태이다. 다만 나이제리아, 카메룬, 케냐, 아

〈표 1〉 計劃初期의 아프리카 主要國 開發 計劃

국 별	개 발 계획 ¹⁾	1인당 GNP 성장율 ²⁾ (1961~81)
알제리아	10개년 장기계획 : 1957~66 5개년 단기계획 : 1959~63	3.2
카메룬	20개년 장기계획 : 1960~80 5개년 단기계획 : 1961~65	2.8
콩고(브라자빌)	20~30년 장기계획 3개년 단기계획 : 1961~63	1.0
콩고(레오플드빌)	10개년 장기계획 20개년 장기계획 4개년 단기계획 : 1962~65	
다호메이		
이디오피아	5개년 계획 : 1957~61	1.4
가나	5개년 계획 : 1959~64	-1.1
기니	3개년 계획 : 1960~63	0.2
아이보리코스트	2개년 계획 : 1962~63	2.3
케냐	3개년 계획 : 1960~63	2.9
리비아	5개년 계획 : 1962~67	—
마다가스카르	10개년 장기계획 3개년 단기계획 : 1959~62, 1963~66	-0.5
말리	5개년 계획 : 1961~65	1.3
모로코	5개년 계획 : 1960~64	2.4
나이제리아	5개년 계획 : 1962~67	3.5
로테시아연방	4개년 계획 : 1959~63	
세네갈	20개년 장기계획 : 1960~1980 4개년 단기계획 : 1961~64	-0.3
수단	7개년 계획 : 1961~68	-0.3
튀니지	10개년 장기계획 : 1962~71 3개년 단기계획 : 1962~64	4.8
이집트	10개년 장기계획 : 1960~70 5개년 단기계획 : 1960~65	3.5

註: 1)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onomic Planning in Africa," Uppal & Salkever, *Africa: Problems in Economic Development*, p. 69.

2) 韓國產業經濟研究所, 研究報告書 第52號, p. 17.

이보리 코스트 등의 英國圈 國家들이 비교적 나은 成長率을 達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地域의 特性을 反映시키려고 애쓴 開發計劃이 中央統制的特性을 갖는 開發計劃보다 나은 成果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計劃初期의 開發計劃들은 國別로 상당히 多樣한 內容과 接近方法을 갖고 있어 共通點을 찾기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각국의 計劃機關 및 그 組織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 類型은 이디오피아, 이집트, 가나, 세네갈 및 마다가스카르 등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計劃機關이 獨自的인 정부 기관으로 設立되어 있는 경우이다. 두번째 類型은 計劃機能이 獨立되어 있지 않고 政府部署에 統合되어 있는 경우로 첫째 類型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 類型에 속한다. 이들 두번째 類型에 속하는 국가들은 計劃機關의 形式的 組織面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部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開發計劃을 위해 獨립된 省이나 部가 창설된 경우로, 예컨대 기니아는 計劃의수립과 실시를 관장하기 위한 計劃省(the Ministry of Planning)이 獨립되어 있다. 그러나 計劃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은 정부와 黨派政治局에서 행한다. 두번째 部類는, 어느 特定省이 여타 機能과 並行하여 計劃機能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튀니지에는 計劃機能을 財務長官이 맡고 있으며 브라자빌 콩고에는 計劃 및 供給省(the Ministry of Planning and Supply)이, 말리에는 計劃 및 農村經濟省(the Ministry of Planning and Rural Economy)이 있다. 세번째 部類는 特定省내에 計劃機能을 전담하는 特定部署가 있는 경우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는 財務省내에 開發局이 있으며 우간다에는 經濟開發省(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내에 計劃專擔局을 갖고 있다.

經濟開發에 따르는 기능을 計劃機能과 監督機能으로 兩分한다면 兩機能을 한 기관에서 동시에 관장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두 기능을 서로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관장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 前者에 속하는 나라들로는 이집트, 이디오피아, 세네갈, 모로코 등이 있고 後者에 속하는 나라로는 가나, 말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나의 경우 계획수립은 국가계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에서, 계획의 감독은 국가통제위원회(State Control Commission)에서 관장하고 있다. 말리에서는 計劃 및 農村經濟省에서는 계획을 맡고 財務省(Ministry of Finance)에서 統制와 執行을 맡고 있다.

한가지 흥미있는 점은, 아프리카諸國의 經濟計劃이 대부분 公共部門을 위주로 한 計劃들이지만 과거 프랑스와 영국 중 어느 나라와의 연대관계가 더 강한가에 따라 計劃成案過程이 좋은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프랑스 영향권내의 국가들의 開發計劃을 살펴보면 計劃 自體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利害를 공동으로 집약시키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가령 모로코의 경우 最

高計劃委員會(Supreme Council for Planning)에는 여러 政府部署와 民間企業人 및 勞組代表들이 參加하고 있고 뒤니지, 세네갈, 기니아 등의 計劃에도 민간의 參여 내지는 地方團體들의 參여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나이제리아, 케냐, 로테시아, 이디오피아, 수단 등 영국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의 計劃은 거의 전부가 公共投資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체로 計劃業務自體가 政府에만 의존하였다. 이러한 아프리카諸國의 計劃樹立過程에는 주로 外國人 專門家들이 대거 參여하였으며 특히 世界銀行 專門家들이 많이 기여하였다. 세네갈, 카메룬 등의 국가에서는 프랑스의 私設研究團體의 힘을 빌린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各國의 計劃機關이 外國專門家들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였다.

아프리카諸國의 開發計劃이 갖는 共通的인 약점은 統計資料가 不足하거나 신빙성이 없고 경제관계부서내의 기획기능이 不充分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계획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부처간 협조체계가 미약하고 계획의 집행진도를 계속적으로 追跡해 나가는 기능이 不足하다는 것이다. 또한 各國內의 地域別計劃(regional planning)이 看過된 경우가 많아 多樣한 人種과 自然環境을 충분히 활용하는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점 등이 흔히 지적되고 있다.

다. 經濟開發計劃의 目標와 方法

經濟開發計劃을 수립하는 아프리카 各國은 물론 外國人 專門家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고충은 當該國經濟에 대한 전반적인 統計資料의 不足이다. 적절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社會・經濟統計가 필요한데 이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을 때에는 개발계획 자체가目標만을 나열하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各國의 計劃이 共通的으로 提共하고 있는 開發目標들은 農業生産성의 향상, 單一品目 내지는 小數品目에 국한된 輸出部門의 擴大, 部門別工業化 내지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등이다. 대부분의 계획들이 開發의 결과 經濟 및 社會構造의 近代化를 一次的目標로 삼고 있고 이러한 構造的變化가 政治的獨立性을 強化시킬 수 있다고 친명하고 있다.

北아프리카諸國(모로코, 알제리아, 뒤니지, 이집트, 이디오피아 등)과 세네갈 등 주로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의 開發計劃을 보면 經濟計劃

의目標가 비교적 計數化되어 있다. 예컨대 국민소득, 투자, 소비, 수출입 및 고용목표 등이 數量化되어 있다.

北아프리카와一部 西아프리카諸國은 部門別目標를 開發計劃上에 明示하고 있다. 예컨대 農業部門은 식량, 가축 및 임업으로 나뉘어 있고, 製造業도 細分化되어 目標成長率을 例示한 경우도 있다.

주로 영국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의 開發計劃은 前述한대로 주로 公共支出의 計劃이며 이들 나라의 計劃은 주로 政府部署別 支出計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開發計劃의 作成方法 역시 統計資料의 利用可能性에 따라 國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北아프리카諸國의 開發計劃이 餘他地域國家들의 計劃보다 훨씬 詳細하고 잘 조작되어 있다.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아프리카諸國의 開發計劃이 대부분 公共部門의 資本的 支出 프로그램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目標들 간에 과연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즉 可用資源에 입각한 計劃(resource-based planning)이라기보다 開發意慾만을 나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開發計劃의 遂行過程에서도 항상 優先順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開發途上國의 開發計劃樹立의 方法論으로는 ‘프로그래밍 接近法(programming approach)’과 ‘부문별 接近法(sectoral approach)’이 있는데 前者는 產業聯關表를 사용하거나 線型計劃法(Linear Programming)을 사용하여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部門別 必要投資額 등을 算出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GNP, 고용수준 등 全般的인 巨視指標의 設定은 주로 이러한 方法에 의존한다. 後者は 주로 프로젝트별 計劃을 部門別로 作成하는 方法이다. 北아프리카諸國은 대체로 이들 方法을 並行시켜서 개발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지중해 연안국들이 보다 발전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국가가 餘他地域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개발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주로 工業發展을 目標로 프랑스의 計劃技法을 援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 開發資金의 調達과 外債問題

아프리카諸國의 開發計劃은 대부분이 公共部門의 資本形成만 취급하고 있고 民間部門의 資本形成과 資本支出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는 나라는 모로코, 세네갈, 이집트 등 일부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에서 民間部門의 資本形成은 곧 當該國에 투자된 外國資本을 의미하는데 外國資本은 주로 선진국 경기 및 당해국의 政治事情 등 예측할 수 없는 要因에 의해 左右되므로 開發計劃의 수행에 필요한 資金調達의 安定的 源泉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최근에는 나이제리아, 아이보리코스트 등 비교적 國內市場의 規模도 크고 보다 나은 產業構造를 가진 나라들은 民間資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國家들이 外資誘致를 위해 稅制面에서나 行政節次面에서 많은 誘引策을 쓰고 있다.

아프리카諸國은 開發計劃의 수행을 위해 政府收支의 黑字나 政府의 農產物販賣機關 등에서의 轉入金으로 충당하거나 國內에서의 起債 또는 外國으로부터의 援助 및 借款에 의존하고 있다.

國內財源에 비고적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디오피아, 우간다, 모로코, 로데시아, 나이제리아, 가나, 앙골라 등이며, 탕가니카, 바수토랜드, 케냐, 모잠비크 및 프랑스領 西아프리카諸國 등은 주로 外國資本에 의존하였다. 初期의 開發計劃들은 國際收支問題에 큰 관심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國家들이 개발계획의 初期에는 프랑스, 영국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제구조하에 있었으므로 국제수지문제는 어디까지나 宗主國과의 문제에 국한하였기 때문이다. 즉 國際收支의 赤字는 宗主國으로부터의 資本流入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開發計劃이 진행되면서 양상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는데 輸出商品은 한정되어 있고 價格 역시 极히 不安定한데 반해 開發需要는 生產施設에의 投資는 물론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등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政治的 獨立은 經濟的 獨立을 수반해야 한다는 國내에서의 壓力과, 그 결과 社會間接資本의 增大가 요구되면서부터 대부분의 나라들은 開發計劃의 수행을 위한 資金調達에 隘路를 겪게 되었다.

輸出部門의 擴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開發需要가 電力開發·道路 등 차본의 회임기간이 긴 프로젝트 중심의 公共部門에의 投資이므로 대부분의 나라가 外換壓迫에 시달리게 되었다. 영국·프랑스 등으로부터의 援助나 借款도 줄어들게 됨에 따라 開發需要를 充足하기 위한 資金調達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北아프리카를 제외한 블랙 아프리카의 경우 輸出은 1977~82년 중 연평균 6.5%씩 증가한 데 반해 輸入은 10.6%씩 증가하였으므로 國際收支는 계속

악화되어 왔고 특히 제2차 석유파동 이후 赤字幅은 크게 증가되어 22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WEFA, 1983).

블랙 아프리카의 外債는 1981年末 現在 全世界 開途國 外債總額의 12.9% 인 약 647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國別로는 나이지리아(117억 달러), 수단(59억 달러), 아이보리 코스트(57억 달러) 및 자이레(46억 달러)가 주요 外債負擔國이다. 세계은행은 1984년 말에는 블랙 아프리카의 總外債規模가 868 억 달러 수준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World Bank, 1983b). 일부 아프리카諸國은 外債壓迫을 견디지 못해 1978~82년 중에는 총 43억 달러 규모의 外債償還日程再調整協定(rescheduling agreements)을 맺어야 했다(World Bank, 1983c).

IV. 問題點과 展望

北아프리카를 제외한 블랙 아프리카諸國의 경우 1980年代 中盤인 현재 추진하고 있는 開發計劃의 總投資規模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95억 달러(年平均 411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에서 社會間接資本, 建設, 土木, 輸送, 通信, 에너지 등과 같이 建設需要와 관련되는 투자규모가 총 1,599억 달러로 計劃의 主宗을 이루고 있다. 年平均 開發投資規模를 國별로 보면 나이지리아가 280억 달러로 블랙 아프리카 전체의 68%를 차지하며, 다음이 짐바브웨(27억 달러), 가나(18억 달러), 아이보리 코스트(17억 달러), 카메룬(16억 달러) 등이다. 部門別 投資優先順位는 產業部門, 社會間接資本部門의 순이며, 產業部門에서는 農業部門, 社會間接資本部門에서는 輸送部門에 각각 力點을 두고 있다(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1984a:17).

가. 計劃推進上의 問題點

開發途上國에서의 經濟開發計劃이 實質的이 成功을 거두려면 特定部門에의 投資프로젝트의 나열보다는 社會全部門에서 일종의 變換(transform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經濟開發은 政治·社會的 變換을 전제로 하거나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프리카諸國의 開發計劃이 대체로 뚜렷한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이다. 以下에는 지난 20여년간에 걸쳐 추진되어 온 各國의 開發計劃이 어떠한

(單位: 百萬 달러, %)

<표 2> 블랙 아프리카 主要國의 現行開發計劃

國 別	計 劃 名	期 間	總投資額	主要部門別 投資比重		
				年平均 投資額	年平均 GDP 成長率	目標 GDP
비 보 크 로 카 증 공 이 감 가 기 아 체 리 말 나	10個年計劃 5個年計劃 第 4 次開發計劃 5차 5개년계획 國家行動計劃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10개년개발계획 2차국가개발계획 나 4차개발계획 아 4차개발계획 아이보리코스트 체 3 척정체 사회문화 5개년개발계획 체 3 척개발계획 제 2 차국가사회경제 개 발계획 5개년개발계획 5개년개발계획 10개년계획	1981~1990 1979. 4~1984. 3 1983~1987 1981. 7~1986. 6 1982~1985 1982~1986 1980. 7~1990. 6 1981/82~1985/86 1981~1985 1981~1985 1981~1985 1980/81~1984/85 1981~1985 1981/82~1985/86 1981~1985 1981~1990	3,529 907 1,189 8,200 413 3,363 13,500 241 9,090 1,453 8,909 7,001 614 2,669 1,463 1,914 ²⁾	352.9 181.4 237.8 1,640 103.3 672.6 1,350 48.2 1,818 290.6 1,781.0 1,400.2 122.8 533.8 292.6 382.8 ²⁾	7.0 .. 3.7 7.2 9.0 10.0 7.5 5.1 2.0 ³⁾ 17.0 ²⁾	인프라부문(33.0) 토목·통신(30.2), 저방정부·토지(18.2), 농업 (11.8) 농업(22.7), 공업(18.2), 에너지(11.5) 농업(23.7), 광공업(16.4), 도시계획(15.3) 인프라(42.0), 농업(27.5), 공업(23.1) 인프라(48.0) 농업(26.0), 수송통신(26.0), 제조업(15.0) 농업(23.0), 제조업(10.0) 농업(22.0), 광공업(18.0), 에너지(9.0) 생활개선(22.3), 농업(20.6), 수송통신(18.9) .. 농업(30.4), 수송통신(25.3), 전력수도(11.6) 수송통신(37.4), 농업(21.1), 사회서비스(13.2) 농업(34.0), 광공업·에너지(26.7), 통신·주택(27.3) 광업(18.1), 농업(17.5), 에너지(13.5) ²⁾

國 別	計 劃 名 稱	期 間	總投資額	年平均 投資額	主要部門別 投資比重	
					年平均 GDP 成長率	年平均 擴 大 率
南 韓	제 4 차국가개발계획 10개년개발계획	1981~1985	140,000	28,000	8.4	광공업(29.5), 도소매업(21.8), 건설·주택(14.2)
朝 鮮	1981~1990	3,786	378.6	..	농업(30.1)	
朝 鮮	제 6 차경제사회개발 4개년계획	1981.7~1985.6	1,900	475	..	광공업(26.7), 수송통신(18.4), 농업(11.9)
朝 鮮	제 3 차국가개발계획	1981~1985	424	84.8	..	
朝 鮮	3개년개발계획	1981.7~1984.6	118	393	..	인프라(50.1), 농업(24.3), 광업(7.8)
朝 鮮	3개년개발계획	1982~1986	2.3%	농업(30.0), 광공업(25.0), 수송(25.0)
朝 鮮	5개년계획	1978.4~1987.3	5.1	..
朝 鮮	제 9차개발계획	1981~1985	4,850	970	6.0	
朝 鮮	제 4차5개년개발계획	1982.7~1984.6	1,356	271.2	6.5	인프라(29.5), 제조업(29.3), 농업(26.5)
朝 鮮	제 4차5개년개발계획	1981~1990	558	279	..	
朝 鮮	2개년회복계획	1982.7~1985.6	2,981	298.1	..	농업(32.5), 광공업(16.9), 수송통신(24.7)
朝 鮮	10개년개발계획	1982.7~1985.6	8,100	2,700	8.0	제조업(23.0), 수송(14.0), 농업(13.0)
計			209,572.4	184.8		

자료 :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아프리카經濟와 우리의 進出擴大方案』, 研究報告書 第51號。

- 首先：1) 1981~83年目標成長率。
2) 1981~85年9月投資規模，年平均產業生產增加率，部門別投資比重。
3) 農業部門的年平均成長率，기타부문은 4.7%。

問題點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요약해 봄으로써 向後 開發計劃의 展望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1) 經濟開發과 이데올로기 問題

UNCTAD가 설정한 바 있는 二次에 걸친 10個年 開發期間(Development Decades: 1960~70, 1970~80)동안 開發途上國들의 經濟開發成果를 보면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그 사회를 지배했던 간에 政治的 安定을 이루한 나라들의 發展速度가 政治的으로 不安定하였던 나라들보다 훨씬 높았다. 아프리카 大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부분의 아프리카諸國과 나이제리아, 아이보리 코스트 등 비교적 빠른 속도의 經濟成長을 이루한 나라들은 相對的으로 政治的 安定을 유지해온 나라들이었다. 물론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石油收入이 원동력이 되었지만 케냐, 카메룬 등은 국가들도 대체로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룬 나라들이었다.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풍미한 脫植民主主義—아프리카化運動은 植民主主義=資本主義라는 인식을 母體로 하였기 때문에 脱從屬의 方法을 社會主義 내지는 共產主義에서 구하였다. 물론 이러한 運動의 배경에는 영국·프랑스 등 舊宗主國의 영향이 줄어든 대신 소련·중공의 進出이 강화된 것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社會主義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主張은 이와 같은 從屬의 克服이라는 意味 이외에도 아프리카社會가 갖고 있는 集團生活의 傳統과 社會主義의 理念이 合致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社會構造가 部族中心이며 地主制가 존재해 왔고, 國家意識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社會主義의 맹목적 적용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버그(E. Berg, 1964)는 아프리카諸國에서의 社會主義의 開發計劃의 적용은 대체로 失敗하였다고 보고 있다. 社會主義의 개발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로 政府가 소유하는 公企業을 경영할 수 있는 유능한 技術人力을 전제로 하지만 아프리카 각국은 이러한 人的 資源이 없는 상태이고 農業部門 역시 대단위 機械營農을 적용할 수 있는 與件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이 서로 國境을 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國家가 貿易을 獨占하기에 부적합하며 그 결과 일종의 ‘國家資本主義(state capitalism)’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철저한 社會主義 開發方式을 적용하였던 대표적인 나라는 1958년 이후

급속히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한 기니아와 가나를 들 수 있다. 兩國의 經濟는 1960년 이후 사실상 停滯狀態에 빠졌으며 1960~81년의 기간동안 1인당 GNP 成長率은 각각 0.2%와 -1.1%에 머물렀다.

아프리카問題에 대한 研究의 또 하나의 部類를 이루어 온 것은 南美의 경
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從屬理論(Dependency Theories)’의 接近方法이
다. 아민(S. Amin), 프랑크(A.G. Frank), 카르도소(F.H. Cardoso), 에마
누엘(A. Emmanuel) 등에 의해 대표되는 從屬理論家들은 南美의 경
험을 一般化시켜 하나의 理論體系를 만들기 위해 아프리카諸國의 發展經驗에 적용
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從屬의 脱皮가 經濟開發의 궁극적 과제이며
이러한 從屬의 脱皮 없이는 經濟發展은 退步하고 所得分配는 더욱 惡化된다고
주장을 하였다. 특히 아민은 아프리카諸國을 歷史的 從屬關係에 따라 ‘植
民經濟地域(Africa of Colonial Economy)’, ‘租借經濟地域(Africa of the
Concession-Ocning Companies)’, ‘遊休勞動地域(Africa of the Labor Re-
serves)’ 및 其他地域으로 區分한 바 있다(Amin, 1971;1972).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從屬理論의 檢證結果에 따르면 南美類의 이 理論이
아프리카大陸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맥고완(P.J. McGowan, 1976)
및 맥고완과 스미스(McGowan P.J. and Dale L. Smith, 1978)는 30개 아프
리카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從屬理論을 검증하였는데 經濟的 依存性(economic
dependence)은 未開發(under-development)과 低調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假說을 기각하고 때로는 正反對의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말러(V.A.
Mahler, 1980)의 1980년 연구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立證하고 있다.

以上的 論議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結論은 아프리카諸國이 開發計劃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너무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면 그것은 곧 選擇可能한 政
策手段을 制約하기만 할 뿐 아프리카의 歷史的 遺產에 맞는 開發環境을 조
성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 브라질 등의 개발경험이 시사해 주는
바와 같이 오히려 開發의 初期에는 어느 정도의 對外依存(external depen-
dence)가 불가피하며 오히려 既存의 依存關係를 活用해야 할 것이다. 일단
經濟開發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從屬의 克服이 可能해 질 수 있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從屬과 貧困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아프리카開發計劃의 結果가 남긴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政府部門의 役割

아프리카諸國의 經濟開發이 成案되고 執行된 과정을 검토해 보면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정부의 역할 내지는 公共部門의 比重을 共通的으로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政治的 獨立에 수반되어 일어난 불가피한 현상이겠으나 社會間接資本 등 公共部門에의 지나친 投資集中은 자본의 회임기간을 길게 할 뿐 아니라 政府官僚에 의한 경직된 운영으로 투자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外國援助의 감소추세 및 一次商品 需要減退등으로 개발자금의 조달이 원천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개발의 효과적 수행은 효율적 投資의 選定과 管理밖에는 方法이 없다. 지나친 政府部門의 확대는 정부관리의 봉급만 올려주게 되어 예산은 경직화 될 수밖에 없었고, 住民의 대다수를 이루는 농민과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二重構造가 深化되어 왔다(Marcus, 1965).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一面 外國民間資本의 導入을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政府의介入에 의해서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일관해 왔고, 政治權力의 核心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 엘리트들이 사회주의적 개발방식에 집착해 왔다. 따라서 向後 아프리카 각국의 과제는 어떻게 民間部門이 產業化과정에서 活性化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고 計劃의 成案과 執行過程에서 이들의 참여가 소외되는 한 큰 進展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3) 農業開發의 問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프리카諸國이 갖고 있는 共通的 特性的 하나는 農業部門이 갖고 있는 막대한 比重이다. 1981년 현재 조사대상이 된 38個國中 1次產業(주로 農業)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나라가 우간다(75%)를 필두로 16개국에 이르며 20~30%인 나라도 8개국에 달하고 있다(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4b:21). 따라서 아프리카開發을 논의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農業部門의 開發을 經濟開發의 最優先課題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傳統的 部族社會에서 自給自足生產을 수백 년간 유지해 온 部門의 開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農業部門의 開發이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 이 部門이 거의 유일한 所得源인 동식에 開發의 二重構造化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工業化 위주로 진행된 아시아나 南美國家들의 개발패턴이 아프리카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論理가支配的이라고

볼 수 있다.

農業部門의 開發方式으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제시되어 왔다(UNFAO, Doc. E/CN. 14/342). 그 하나는 주로 가나, 나이제리아 및 東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시도되었던 것으로 인도식의 村落開發(community development) 方式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組合中心의 村落開發方式은 生産性 증가가 인구증가를 능가할 수 없음이 이미 인도에서 입증되었고 다만 인도의 경우 下位階級民에 대한 착취가 계속되었을 뿐이다. UN 보고서는 이에 반해 中共이 적용해 온 農業人力에 대한 投資方式(human investment)이 農村의 失業을 해결하고 식량증산을 해결하는 더 나은 方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中共에서도 최근 사유재산제도의 부분적 도입 등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 큰 成果를 올리고 있으므로 결국 아프리카諸國도 이와 같이 집단경영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복합된 형태의 農村開發이 필요하다.

(4) 優先順位 選定의 問題와 國內貯蓄

아프리카諸國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 하나는 광범위한 開發計劃을 위한 資金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981년 현재一部 아프리카국의 國內貯蓄率을 보면 이집트 17.0%, 아이보리코스트 16.5%, 케냐 13.6%, 잠비아 6.8%, 수단 3.0% 등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아프리카 開發計劃이 外債負擔에서 벗어날 전망은 희박하며 따라서 모든 部門에서의 開發需要를 동시에 만족시킬 도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한정된 開發資源을 어떤 部門에 集中的으로 配分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向後 開發計劃의 最大課題가 될 것이다.

一方的인 特定部門의 工業化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심화시킬 수 있을 여지가 많으며 大單位 프로젝트는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電源開發에 참여하는 地域間協調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발투자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고 開發의 速度는 감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아프리카經濟의 開發展望

베일리(R. Bailey, 1976)가 지적한 대로 아프리카의 未來는 過去에 의해 制約되며 지나친 樂觀도 悲觀도 있을 수 없다. 아프리카經濟의 開發展望은前述한 諸問題點들을 各國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開發悲觀論은 아프리카의 歷史的

遺產을 否定的인 측면에서만 너무 강조해 온 점이 없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광범위한 自給部門(subsistence sector)을 갖고 있으므로 GNP推計 등이 過少評價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現在와 같이 이제 世界經濟가 工業化의 과정을 넘어 技術發展의 速度에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아프리카 개별계획이 갖는 短期的 展望은 悲觀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극히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프리카開發이 갖는 意味는 비록 相對的 貧困(relative poverty)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絶對的 貧困(absolute poverty)의 극복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아이보리 코스트, 나이제리아, 카메룬 등 一部國家의 경험에 立證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가 갖고 있는 最大의 잠재력은 逆說的이기는 하지만 未開發의 狀態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풍부한 鎳物資源과 水力資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長期展望은 반드시 否定的인 것은 아니다. 다만, 關係의 速度는 二次大戰直後에 新生國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늦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現實에 대한 自覺이 開發計劃의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때에만 경제개발의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아프리카經濟의 長期的 開發展望을 公正적으로 보아야겠다는 論理가 立證될 수 있는 最善의 證據는前述한 바 있는 아프리카 開發計劃에 대한 日本의 持續的인 參與에서 찾아볼 수 있다.⁽³⁾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 나라의 對아프리카進出도 보다 長期的인 안목과 전략 밑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기대는 아프리카의 現在와 未來를 잘못 파악하는 데에서 由來될 것이다.

참 고 문 현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1984a 『아프리카 經濟와 우리와 進出擴大方案』, 연구보고서 제51호.

1984b 『아프리카 主要國의 商品輸入構造分析』, 연구보고서 제52호.

Amin, Samir

1971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The African Experience," in B. Ward, J.D. Runnals and L. D'Anjon, eds., *The Widening Gap: Development in the 1970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312-333.

1972 "Underdevelopment and Dependence in Black Africa: Historical Origin",

(3) 日本의 對아프리카 進出現況은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1984a)에 비교적 상세히 취급되어 있다.

- Journal of Peace Research, 9:105-119.
- Ashton, T.H.
- 1948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London, Hutchinson, Home University Library.
- Bailey, Richard
- 1976 *Africa's Industrial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 Berg, Elliot J.
- 1964 "Soci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ropical Afric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8, No. 4:549-573.
- 1972 "The Character and Prospects of African Economics," in J.S. Uppal and L.R. Salkever, eds., *Africa: Problems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Free Press.
- Frankel, S.H.
- 1969 *Capital Investment in Africa*, New York, Howard Fertig.
- IMF
- 198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 Mahler, Vincent A.
- 1980 *Dependency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arcus, Edward
- 1965 "The Economic Role of the Government in Independent Tropical Africa,"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24, No. 3:307-315.
- McGowan, P.J.
- 1976 "Economic Dependenc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Black Afric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14:25-40.
- McGowan, P.J. and D.L. Smith
- 1978 "Economic Dependency in Black Africa: An Analysis of Competing Theo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179-235.
- UNFAO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 The Necessit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frica 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UN. Doc. E/CN. 14/342.
- Uppal, J.S. and L.R. Salkever, eds.
- 1972 *Africa: Problems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Free Press.
- WEFA
- 1983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83.
- World Bank
- 1983a *World Development Report*
- 1983b *The World Bank Annual Report*
- 1983c *World Debt Tables: Externa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1982-83*.